

캘리그래피 : 손보영 카타리나 (덕계성당)

연중 제4주일

제1독서 예레미야서 1,4~5.17~19

화답송 시편 71(70),1~2.3과 47ㄷ,5~6ㄷ,15ㄴㄷ과 17 (© 15ㄴㄷ참조)

◎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1.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 의로움으로 저를 건져 구하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
2.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보루시웁니다. 저의 하느님, 악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
3. 주 하느님, 당신은 저의 희망, 어릴 적부터 당신만을 믿었나이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나이다. 어미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웁니다. ◎

4. 당신 의로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저의 입은 온종일 이야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

제2독서 코린토 1서 12,31~13,13

복음 환호송 루카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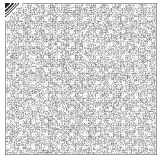
◎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복음 루카 4,21~30

영성체송 시편 31(30),17~18 참조

주님,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학창시절 음악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목소리를 내기 전에 먼저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합창을 할 때에도 내 목소리를 앞세우기 보다는 타인의 소리를 듣는 귀가 필요하지.” 돌이켜보면 선생님의 말씀은 ‘노래는 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부르는 것’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제대로 들을 줄 아는 귀에 대해 생각할 때면 그 말씀이 떠오르곤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당신께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밝히시며(루카 4.18~19)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루카 4.20)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고집으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

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표징 까지도 의심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결국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이르지요. 하느님께 나아가지도, 성장하지도 못한 채 은총에서 더욱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선입견과 고집으로 인해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린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혹시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마음을 닫아 버린 채 자신의 생각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시기와 질투로 하느님과 이웃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쌓아 올린 편견과 불신의 벽이 하느님의 은총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렙타의 과부와 시리아 사람 나아만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따랐을 때 축복과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은총 속에 머무를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께도 귀 기울인다면 주님은 분명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들을 줄 아는 귀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로운 해’를 맞이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이 재 석
안드레아 신부
화봉성당 주임



하느님께서도
이열치열以熱治熱의 효능을
알고 계시나 봅니다.

어떤 고통으로 공공거릴 때
또 다른 색깔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글. 장정에 마리아고레피 시인(만덕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2.4(월)~5(화)
이재석 신부(화봉성당 주임)
2.6(수)~9(토)
전재현 신부(해운대성당 부주임)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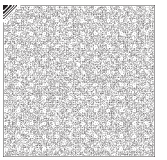
진행 : 김현지 리나

2.5(화) 설 특집
〈본당 리포터들과 함께〉

출연 : 정세자 에스텔(하단), 구성은 글라라, 이은영 데레사(남천), 장귀선 마르첼라(남밀양), 문민정 스킨스틱(꽃바위)
전화연결 : 원구룡 베드로(태종대), 안혜현 안나(연양)



나눔의 기쁨을...



기쁨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을 찾아, 고향을 찾아 선물 보따리와 들뜬 마음으로 설 명절을 준비합니다. 학교 기숙사 학생들도 모두 집으로 떠나가고 텅 빈 기숙사에서 지나간 과거의 설 명절을 조용히 뒤 돌아봅니다. 저의 어릴 적 설 명절은 명절 음식을 나누어 주는 심부름으로 뛰어다녔고 세뱃돈 많이 주시는 고모나 삼촌, 이모들이 더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또 동네 친구들에게 돈 자랑과 함께 친척들을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때였고 대청마루에서 차례를 기다릴 때 시린 발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세배를 하고 세뱃돈 받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운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나누어 주며 덕담을 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명절이 되더라도 어린 조카들이 몇 명 없어 조용한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개인 중심적인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나누는 기쁨을 잘 알지 못한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 과일들을 기숙사로 보내오면 옆 방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줄 모르고 방안에 오랫동안 두다가 변질되어 통째로 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조금만 나누어 먹으면 버리는 일은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에는 자녀들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맛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부산교구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약 60여 개소가 있고 목요일과 일요일 저녁 부산진역에서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는 봉사를 하는 '신빈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약간의 먹거리를 들고서 복지시설이나 누군가

를 기다리는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도록 덕담도 하고 덕담을 함께 실천한다면 정말로 따뜻한 설 명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육화의 신비를 보여 주셨고 성체성사를 통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나의 살과 피는 나누지 못한다 하더라도 설 연휴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소리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설 명절,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맛있게 드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도록 조그마한 선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가면서 올 해를 나누는 기쁨을 맛보는 해로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강 송 환 마르코

해운대성당 ksh4441@hanmail.net



유사종교에 관한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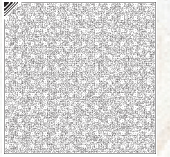
유사종교, 혹은 사이비나 이단에 관해 우리가 갖는 마음이 다 같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듯합니다. 이 두려움은 많은 경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데에서 옵니다. 유사종교 문제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두려운 마음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없거나 논쟁에서 질까 봐 겁이 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논쟁으로 그들을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유사종교에 간 사람들이 바랐던 것도 우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유사종교에 들어갔다가 오류를 느끼고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온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다시 돌아와 찾은 자신의 신앙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청년이 바랐던 것 역시 하느님의 구원이었습니

다. 다만 그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용당했거나, 그들의 논리에 속아 참신앙의 진리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유사종교에서 말하는 교리와 논리의 오류를 찾아 논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신앙을 통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유사종교에 간 사람들 역시 바라는 것은 하느님이고, 구원이기에 우리가 이미 가진 신앙의 보화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비와 사랑으로 넘칠 때, 사랑이신 하느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부산교구



설 차례(茶禮) 예식

천주교 가정 제례는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조상 숭배의 개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자 가정에서는 기일 등에는 가정의 제례보다 우선하여 위령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5조 1항 참조)

← 친구
🔍 ☰

2019년 2월 1일

친구

친구야, 가톨릭은 명절에 조상제사 지낸대며?

당근이지

친구

깜놀이네, 하느님 믿으면서 제사 바치면 미신이나 우상 숭배 아닌가?

네버!!!

유교문화권에서는 ‘효’가 가장 중요한 사회덕목이고

제사는 죽은 부모님을 기념하고 섬기는 예식인데 반대하면 안 되지.

돌아가셨다고 부모자식 관계가 사라지나?

친구

‘죽은 부모 섬기기를 살아 생전처럼 하라’...

그렇지.

대신, 지방을 쓰고 태운다든지, 손가락을 꽂는 행위 같은 미신적인 부분은 빼고,

음식은 전통을 지키는 대신 조상님들이 좋아하셨던 거나,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것, 이런 것들로 차리면 되고, 술잔이나 절은 정성껏 올리고 ^^

친구

오~

제사도 제사지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명절이나 기일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먼저 봉헌한다.

미사가 최고의 제사니까..

+
😊 #

준비

1. 마음과 몸의 준비 :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복장을 단정하게 갖춘다.
2. 상차림 : 음식을 차리지 않고 단순하게 추모 예절을 위한 상을 차릴 수도 있다. 상 위에는 십자가와 조상(고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모시며,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음식상을 차릴 때에는 형식을 갖추려 하지 말고 소박하게 평소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린다.

시작 예식

성호경

시작성가

가톨릭성가 50번, 54번, 227번, 436번, 462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

시작기도

+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조상님들을 기억하며 차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 25~26)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신 주님께 조상님들과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이 예절에 참여합니다.

(잠시 침묵 후에)

+ 주님, 이 세상에서 불러 가신 주님의 종()를 받아들여이시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말씀 예절

성경 봉독

마태 5, 1~12, 요한 14, 1~14, 로마 12, 1~21, 1코린 13, 1~13, 에페 5, 6~20, 요한 15, 1~12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장의 말씀

가장은 조상(고인)을 회고하면서 가훈, 가풍, 유훈 등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준다. 또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권고한다.

추모 예절

분향과 배례

가장이 대표로 향을 피우고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함께 큰절을 두 번 한다.

위령 기도

긴 위령 기도를 바치거나 노래로 부를 때에는 『상장 예식』(또는 『위령 기도』)을 참조한다. (가톨릭 기도서 P.74~79)

마침 예식

마침성가

가톨릭 성가 50번, 54번, 227번, 436번, 462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

성호경

음식 나눔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사랑과 친교의 대화 시간이 되도록 한다.



1869호 2007. 2. 11.
소곤소곤(장재봉 신부)

2019년 회장단·총무 연수



지난 1월 27일(일) 양산 정하상바오로영성관에서 본당 회장, 부회장, 총무, 제단체장 3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회장단·총무 연수'가 있었다. 이번 연수는 사목지침 '희망의 해' 해설, 교구 및 울산대리구 평협 정기총회, 제단체 소개, 주

제 토의, 파견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거행된 파견미사 중에 선교, 교리교사, 사랑봉사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손삼석 주교는 강론을 통해 "신부님들과 본당 구성원 모두가 당면한 우리 교회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실천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수상자 명단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임 중고등부 의장단, LT (Leadership Training)

지난 1월 18일(금)~20일(일), 25일(금)~27일(일) 푸른나무교육관에서 '제51차 신임 중고등부 의장단 Leadership Training' 1차, 2차 교육이 있었다. 'Road to Lord'라는 주제로 열린 교육은 대화법 및 의사소통에 관한 특강, 나눔 교리 및 리더십 교육법에 관한 특강 및 실습,

포스트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책임감 있는 리더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청소년사목국(국장 : 김대성 신부, 담당 : 조재문 신부) 주관

부산가톨릭대학교, 펠리치타 캠프



부산가톨릭대학교(총장 : 신호철 신부)는 지난 1월 16일(수)~18일(금) 2019학년도 예비 입학생(수시 합격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펠

리치타 캠프'를 실시했다. 대학 생활의 적응과 내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학교 탐방, MBTI 특강, 부산 역사 및 문화 탐방, 연탄 나눔 봉사 활동(범일동 매죽지마을), 선배와 함께하는 멘토 교육 등으로 진행되었다.

축하합니다!



호계

다윗의 망루 소년 Pr. 1,000차 주회

1월 26일(토)

주임 : 배상복 신부, 단장 : 안옥득 제노베파



금정

사도들의 모후 Pr. 2,000차 주회

1월 17일(목)

주임 : 주영돈 신부, 단장 : 홍완식 안토니오



광안

창조주의 모후, Pr. 2,000차 주회

1월 22일(화)

주임 : 강현철 신부, 단장 : 강성희 타대오



범일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 3,000차 주회

1월 26일(토)

주임 : 김영호 신부, 단장 : 조행심 아녜스



사하

지혜로우신 모후 Pr. 2,000차 주회

1월 23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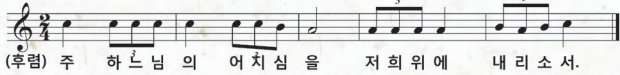
주임 : 오창일 신부, 단장 : 이희순 루실라

설

제 1 독서 민수기 6,22~27

화 답 송 시편 90(89),2와 4.5~6.12~13.14와 16 (© 17~)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1.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2. 당신이 그들을 끌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3.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

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4.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리내소서. ◎

제 2 독서 야고보서 4,13~15

복음 환호송 시편 145(144),2

◎ 알렐루야.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복 음 루카 12,35~40

영성체송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교 구

성소분과위원장 연수 (교육 및 미사)

· 2,10(일) 09:30~14:00 · 교구청 5층 강당
문의: 629-8760(성소국)

예비신학교 등록 안내

대상: 사제성소에 관심이 있는 중1~고2 남학생, 지원자반 / 등록방법: 성소국 홈페이지 (sungso.cath.kr) 및 교구공문 참조
마감: 2,22(금) / 등록비: 5만원
예신입학식: 3,10(일) 13:30 신학대학
문의: 629-8760(성소국)

본 당

장산성당 사무장 구함

서류: 이력서, 교적, 추천서
자격: 엑셀사무, 운전 / 문의: 527-8677

부산교구 청년사목위원회



▶ 2월호 바로보기



기관·제 단체·위원회

부산ME 소개모임

울산: 2,10(일) 15:00 복산성당
부산: 2,11(월) 20:00 남천성당
365차 ME주말: 2,22(금)~24(일)
사랑방 ME 소개모임: 수시 / 문의: 010-5875-4767
010-4872-5051(울산), www.mekorea.or.kr/bs

군중후원회 자녀입대자 등록

내용: 성명(본당, 세례명), 부모님 전화번호, 부대주소(자세히), 제대일 / 활동: 위문품, 군생활 관련 문의
접수: 751-3610(부산), (052)274-3608(울산)

해양사목 외국선박 방문 자원봉사자 모집

· 매주 화, 금요일 14:00~17:00 / 문의: 469-7658
조건: 외국어 회화 가능자(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하늘공원 설 합동 위령미사

2월 5일(화) 11:00 봉안당 내 경당

▶ 설 당일은 셔틀버스 운행하지 않습니다 ◀

* 조화 반입 금지(설 연휴기간 생화판매) *

문 의 : 055) 374-8733

꾸르실로 참가 신청 접수 및 마감

제415차(형제): 2,14(목)~17(일) / 마감: 2,7(목)
제416차(자매): 2,21(목)~24(일) / 마감: 2,13(수)
제417차(형제): 3,7(목)~10(일) / 마감: 3,2(토)
제418차(자매): 3,14(목)~17(일) / 마감: 3,7(목)
문의: (055)388-5734, (팩스)388-5733, 본당 간사

교구평협 본당순례 및 성지순례 완주자 인증서 및 축복장 수여식

· 2,10(일) 15:00 · 남천성당
확인서 제출하신 순례 완주자는 수여식에 꼭 참석바랍니다 / 문의: 622-5588

울산가톨릭합창단 단원 모집

연습: 매주 월 20:00 야음성당
지도신부: 이강우 신부, 지휘: 조현수
문의: 010-9471-0822(총무)

혼인미사 예식 안내

금, 토, 일, 공휴일: 11, 13, 15, 17시

문의 및 예약: 051.441.3500 (수~일)

* 호텔예식 그 이상의 품격과 기쁨 *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주) 씨피여행사

1. 2/26 이스라엘 9일 잔여 8석 380만원
2. 3/15 로마,루르드,바르셀로나,파티마 13일
3. 3/18 멕시코,쿠바,페루순례 12일 605만원
4. 4/24 스페인일주,폴루칼 14일 나405만원
- 네이비에 '씨피여행사' 일정표 검색
247-5858, 010-3837-6434 부산출발

장정애 한복디자이너 동국주단

최상희(안나), 장정애(요안나)
(본점) 부산진시장 (지점) 자성대 서문 입구
997-0707, 010-9243-5776

아이젠트리 대연점

누진다초점안경, 콘택트렌즈 전문점
고기 현 (엘리아)

624-7942

대연동 제일은행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대연역 2번출구, SK뷰힐스 상가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2/23 이스라엘 일주 9일 360만원
2/26 터키, 그리스 13일 395만원
3/3 크로아티아, 발칸반도 12일 360만원
3/27 코쿠르 성지순례 13일 539만원
02-2281-9070 www.cttour.org

결혼예복, 예단, 천연염색, 한복대어

협성주단·한복

강영숙(헬레나) 이용복(안드레아)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269~271호 (7호문 안쪽)

646-1123
010-3594-2137

가족이 모여 앉을 집안행사 부터
신나는 관광, 풀워있는 정례까지
'45년차 동보돼지수육'
정성을 더하겠습니다.
수육, 편육 전문
전 영 은(데레사), 조 창 원(안토니오)
809-1517, 010-7759-1188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 경 우 (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2층
744-8181 www.bmu.co.kr
상담 010-5616-8600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자산관리

DB금융투자

주식 및 상품 투자운용상담
팀장 정기준 (프란치스코)
241-5454, 010-3186-3897
센텀시티역 2번 출구

반지마을 광안리점

99.9% 은반지 만들기 체험공방
(커피링, 우정, 가족, 학생체험 반지)
정재욱 (마태오), 오지영(엘마)
752-6708
010-3835-1000
광안동철 버스정류장 앞

전화 주문, 전국무료배송

정관장 홍삼 전포점

박상균(미카엘), 장은아(루시아)
819-2304
010-3584-7347, 010-4901-7347
2호선 전포역 2,4번 출구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은이 기도회
· 2, 4(월), 6(수) 휴회합니다
- 수요치유기도회
· 2, 6(수) 휴회합니다.
- 금요철야기도회
· 2, 8(금) 23:00~9(토) 04:00
강사: 황병석 신부(마산교구)
- 꿈 피정(꿈 분석을 통한 자아발견)
· 2, 8(금)~10(일) / 회비: 20만원, 선착순 20명
준비물: 최근 할말 이내 꿈 일기
- 성모님과 함께하는 100단 묵주기도
· 2, 11(월) 11:00~16:00
중식제공, 도유와 안수
- 453차 젊은이 묵상회
· 2, 15(금) 18:00~17(일) 17:30
회비: 12만원(교재비 없음)
16:3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지하도 입구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사무실 6층 (15평, 16평, 20평, 36평)
문의: 462-1870(가톨릭센터 행정실)

농아인복지회 후원회 미사

· 2, 8(금) 11:00 · 농아인복지회 3층 성전
문의: 751-8693

울산파티마의세계사도직 연합셀 및 월미사

· 2, 12(화) 13:00~15:00 · 복산성당 소성전
문의: 010-2428-5785

평신도선교사회 정기총회

· 2, 9(토) 14:00 · 부산가톨릭신학원
문의: 462-0334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본당 사무실 또는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 문의: 462-0334
(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메리놀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 1, 21(월)~2, 22(금) / 대상: 60세 이하
(최근 1년내 사별경험이 있는 분 제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수하신 분 또는 이수예정자)
문의: 461-2340(담당수녀), 461-2709(사회복지사)
* 남, 여 목욕봉사자 모집합니다.

교육 · 모집 · 기타

<신난다 첫영성체교리> 교사연수

· 2, 11(월) · 푸른나무교육관
문의: 010-3193-3348(생활성서사 홈페이지 참조)

심리상담 강좌 <우니캣>

· 2, 25~4, 29 매주 월요일 10:00~12:15(10주)
내용: 사랑이 탄생되는 정서발달과정1, 부모자녀관계회복
문의: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중고생 살레시오 <3S영성 리더십>교육(G과제)

· 2, 22(금)~24(일) 09:30~16:30
(단, 마지막날 11:00부터/부모님 초대)
G, P, S과제 수료자: VIDES(살레시오 국제자원봉사단) 가입 가능
문의: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서울 삼성산성지 무료 치유 대피정

· 2, 8(금) 18:00~10(일) 15:00
· 서울 삼성산 피정의 집
강사: 윤민재 신부 외 전국 유명 강사
내용: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출발: 부산역 교원 공제 앞 10:00,
서면 12번 출구 10:15, 동래 3번 출구 10:35
문의: 010-6812-3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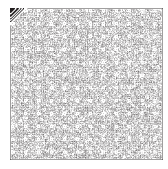
제3차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 하는 치유피정

· 3, 2(토)~3(일) · 의왕시 아론의 집
주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 28)
강사: 정건석 신부, 유용덕 신부, 두현자 회장
문의: 010-8517-2306, 010-6366-9356(주최: 미국 중남부 성령성신 봉사자 협의회, 하찬사)

제29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공모

신문, 방송, 출판, 영상, 뉴미디어 등
대상 1,000만원, 특별상 300만원
접수: 4, 30(화)까지 / 문의: (02)460-7626
주최·주관: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참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피정

· 2, 14~16, 2, 19~22, 3, 1~3, 3, 5~8, 3, 11~13
3, 19~22 / 대상: 개인, 가족, 본당단체 등
내용: 올레길, 매일 미사, 기도, 강의
문의: (064)796-9181

제주 변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아래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예약가능
· 2, 16~18(한라산눈꽃산행), 2, 22~24(눈꽃산행), 2, 25~27, 3, 8~11(추자도), 3, 20~22, 3, 24~27(추자도) / 문의: (02)773-1463, (064)756-6009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피정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2일 피정: 3, 16(토)~17(일) / 4, 13(토)~14(일)
3박4일 피정: 2, 21(목)~24(일) / 3, 21(목)~24(일)
8박9일 피정: 2, 12(화)~20(수) / 3, 1(금)~9(토)
40일 피정: 4, 23(화)~6.1(토), 6, 17(월)~7.26(금)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 3월~12월 (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 무료, 수당 지급, 취업
대상: 15~30세 남자 / 문의: (02)828-3600

2019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 내용: 성서, 교의, 전례 등 26과목
원서접수: 2, 13(수)까지, 우편 신청 가능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작은형제회 50차 터키, 그리스 순례

· 4, 1(월)~13(토) / 420만원
문의: 010-9454-5648, www.terrasanta.kr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	2.9(토) 14:00, 10(일) 10: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3015-1773
올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녀회	2.10(일) 14:00~17:00	수녀원 해바라기방	010-8551-3312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9학년도 1학기 "이콘(성화상) 그리기" 수강생 모집
교육: 3/5(화)~5/22(수) <12주>
수업: 화 14:00~17:00 / 화 18:30~21:30 / 수 10:00~13:00 중 선택
문의: 510-0951-3, edu.cup.ac.kr
입학처: 051-510-0701-4 / ipsi.cup.ac.kr

부산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일상생활동작실 신설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일상 및 가정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동작훈련(옷 입기, 배변, 청소 등) 가능
문의: 933-7419 (재활의학과)
건강한 삶, 행복한 삶. 부산성모병원이 함께합니다.

가톨릭센터 복음 문화 나눔 행복 한 세상

가톨릭센터 "실버영화관(인생극장)" 개관!!

*고전 명화들을 365일 상영합니다.
(55세 이상 2,000원 / 일반 4,000원)
상영작: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문의: 245-5441(인생극장)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향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성(클라로)·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

선 비 목 집
통영산 굴 코스 요리 개시
굴구이, 생굴회, 코다리찜
굴전, 굴탕수육, 굴국밥
입 안에 바다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 목요리, 코다리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553-3929 동래 메가마트 정문 옆, 주차안

매매·교환·위탁·폐차·각종보험
각종 차량 구입 및 등록 대행, 정비 상담
일산자동차매매상사
대표 조남철(테레오) 010-3573-8797
현대자동차 신차의 모든것
(제네시스, 아반테 등)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

모니카주단·한복
혼수예단, 결혼예복 전문
향위식(레오) 김 필봉(모니카)
645-5127, 010-3553-5127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151, 152호(1층 4호문 중간)

라이프치과의원
전문과목 / 임플란트, 틀니
(65세이상 보형 임플란트, 틀니 환영)
치의학 박사, 최 제훈(마오로)
치의학 박사, 박 찬 아(요한 금구)
743-3334
해운대 31번 종점 맞은편 8층 건물(2층)
부산최초제조허가, KGMF(우수제조)인증업체
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무료제작, 일반90%혜택

바티카노
성물, 전례용품 전문점
디자인 목주반지(금, 은)
517-4224
010-5488-4224
가톨릭 신학대학 앞

이삿짐은
우리트랜스로
582-1414
010-4042-8662
돌아가신 분 유품 처리해드립니다
대표: 변성만(요한)·권명숙(로사리아)

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베드로)

샬트르성바로 백합식품
수녀회
100% 국산콩 메주, 된장
간장, 찜장, 고추장, 청국장
자인본사 053)857-2037
대구판매소 053)257-1771

독일보청기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석 수리
김 무 나(글라리) * 교우 특별 할인 *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역 4, 6번 출구(1층, 빨간역 간판)